

물 먹은 방망이, 믿을 건 '베테랑의 힘'



KIA, 6월 팀 타율 0.266 리그 8위...타저투고 극심
마지막 두경기 영봉패로 마감...타격 살리기 고심
윌리엄스 감독 "변수 많은 계절엔 베테랑이 잘해줄 것"

'투고타저'의 6월을 보낸 KIA타이거즈가 베테랑의 '경험'으로 7월 순위싸움을 벌인다.

KIA는 지난 6월 6경기 치러 12승 9패, 승률 0.571의 성적을 냈다. 6월 성적은 키움(19승 6패·0.760), 삼성(15승 10패·0.600), NC(14승 10패·0.583)에 이어 4위. 5월과 마찬가지로 '투고타저'의 흐름은 계속됐다.

6월 팀 평균자책점은 3.85로 키움(3.25)에 이어 2위다. 하지만 타율은 0.266으로 약물의 6월을 보낸 SK(7승 18패·타율 0.235), 한화(5승 19패·타율 0.239)에 이어 뒤에서 3위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 마지막 두 경기에서는 연달아 영봉패를 당하는 등 20이닝 무득점으로 6월을 마감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지난 한 달에 대해 "몇 경기에서 좋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 수비는 견고했다. 선발투수들은 꾸준히 좋은 피칭을 해줬다. 지난 주 타격이 좋지 않았지만 시즌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다"고 돌아봤다.

이어 윌리엄스 감독은 홍상삼과 유민상을 6월 투타의 MVP로 꼽았다.

윌리엄스 감독은 "홍상삼이 눈에 띄었다. 여러 역할을 맡아줄 것을 부탁했는데 그 역할을 잘해주면서 좋은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다. 유민상도 잘 해줬다. 작은 부상이 있어서 조절한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경기 면에서 꾸준했다"고 평가했다.

돌아보면 '부상'도 KIA의 6월 키워드 중 하나였다.

김선빈이 주루 도중 왼쪽발목 통증을 호소하면서 지난 10일 부상자 명단에 올랐고, 23일 복귀했다.

김선빈을 대신해 엔트리에 등록된 '이적생' 류지혁도 빠르게 팀에 적응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15일 SK 원정경기에서 왼쪽발목 근육 파열 부상을 입으며 당분간 자리를 비우게 됐다.

'최고참' 김주찬도 6월 22일 허리통증으로 부상자 명단에 오르는 등 부상 악재가 겹쳤다.

날씨라는 변수가 더해지는 7월, 윌리엄스 감독은 베테랑들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윌리엄스 감독은 "더워지고 비가 많이 오는 등 변수가 많아지는 시즌이 오면 베테랑들이 잘해줄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다"며 "이런 (날씨 등에 따른) 변화에 훨씬 익숙하고 잘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며칠 우천으로 경기가 취소되면서 베테랑들이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 7월 한 달 잘해줄 것이다"고 베테랑의 경험을 7월 전력으로 꼽았다.

윌리엄스 감독은 전력 최대화를 위한 적절한 체력 안배에 관해 이야기도 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최형우와 나지완은 경기 뛰는 것을 조절하는 등 체력 안배를 하면서 길게 보고 가겠다"며 "이민우와 임기영은 이닝수를 보면서 시즌을 보내고 있다. 추가 기회가 있을 때 휴식을 주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긴 안목을 가지고 혹서기를 꾸려가겠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최형우



나지완



나주환

윌리엄스 감독 "가능 무기는 체인지업"

덕아웃 T 특특

▲우리 팀에 닮은 코치가 있다 = 우천 취소로 화요일 경기를 치르지 못한 KIA 타이거즈. 윌리엄스 감독은 1일 한화전을 앞두고 "하루 종일 경기를 준비했는데 경기를 못하면 심심하다. 어제는 넷플릭스 보면서 푹 쉬었다"고 언급했다.

한국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본 적은 없는데 야구 드라마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다"며 "우리 팀에 주인공이라 닮은 코치가 있다. 광정철 코치다. 광정철 코치는 지난 겨울 화제가 됐던 드라마 스토브리그의 등장 인물 '강두기'를 닮았다."

▲체인지업의 힘? = 올 시즌 KIA는 브룩스와 가용, 두 외국인 투수로 선발전에 힘을 실었다. 브룩스는 팀 내 가장 빠른 공과 빠른 템포로 승부를

하면서 지난 6월 5경기에서 1.78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했다. 리그 전체 2위. 가용도 3.80의 평균자책점으로 패 없이 2승을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가용의 장점에 대해 질문을 받은 윌리엄스 감독은 "변화구 제구가 좋은 선수다. 특히 체인지업이 좋다"며 "체인지업 제구가 잘 되는 날은 어떤 상대를 만나도 까다로운 투수다. 변화구 체인지업이 잘 들어가고 있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먹어도 안 쎄요 = 날이 더워지면서 '체력'은 선수들에게 중요한 부분이 됐다. 잘 먹고 잘 쉬는 게 전략이 될 혹서기. 외야수 오선우의 고민은 "먹어도 안 쎄다"는 것이다. 올 시즌 파워를 늘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많이 먹으면서 살을 찌웠지만 여름이 되면서 눈에 띄게 몸무게가 줄었다. 오선우는 "요즘 살이 빠졌다. 정말 많이 먹는 편인데 살이 안 쎄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축구 神' 메시 700골은 파넨카킥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맨 오른쪽)가 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캄노우 스타디움에서 열린 라리가 경기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개인 통산 700호 골을 넣은 뒤 동료 선수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최효진, K리그2 8라운드 베스트 11

전남드래곤즈의 수비수 최효진이 8라운드 베스트 11에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K리그1 9라운드, K리그2 8라운드 경기를 평가해 베스트 11을 발표했다.

최효진은 적으로 상대했던 박민규·조유민(수원 FC)과 수비수 부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남은 수원FC와의 홈경기에서 전반에만 8개의 경고 카드를 주고받는 치열한 접전 끝에 1-2로 패했다. 팀은 쪼잔만을 시즌 400경기 출장을 달성

한 16년 차 최효진은 노련한 플레이로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한편 K리그2 8라운드 MVP는 서울이랜드 레안드로에게 돌아갔다. 레안드로는 부천FC와 경기에서 2골 1도움의 활약을 하며 팀의 3-2 역전승을 이끌었다. /김여울 기자 wool@



최효진

맨유, 챔스리그 진출 '한걸음 가까이'

브라이턴 꺾고 5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브라이턴 연 호브엘비언(이하 브라이턴)을 꺾고 5위에 오르며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한 걸음 다가갔다.

맨유는 30일(한국시간) 영국 브라이턴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커뮤니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2020 프리미어리그 32라운드 원정 경기에

서 페르난데스의 멀티 골을 앞세워 브라이턴에 3-0으로 이겼다.

이날 승리로 맨유(승점 52)는 한 경기를 덜 치른 4위 첼시(승점 54)를 바짝 추격했다.

UEFA 챔피언스리그 티켓은 정규리그 4위 팀까지 주어지지만, 2위 맨체스터 시티가 재정적 어려움(FFP) 위반으로 출전 금지 징계를 받으면서 2020-2021시즌에는 5위 팀까지 나갈 수 있다.

/연합뉴스

마드리드전 페널티킥 성공...역대 7번째로 호날두 보다 111경기 빨라

'축구의 신'으로 불리는 스페인 FC바르셀로나의 골잡이 리오넬 메시(33·아르헨티나)가 개인 통산 700호골 급자탑을 세웠다.

메시는 1일(한국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캄노우에서 열린 2019-2020시즌 라리가 33라운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홈 경기에서 후반 5분 페널티킥 키커로 나서 파넨카 킥으로 득점했다.

메시가 프로 클럽과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가진 모든 공식 경기에서 넣은 700번째 골이었다.

이로써 메시는 세계 축구 역사상 7번째로 700호 골 고지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영국 방송 BBC 등에 따르면 앞서 요셉 비칸(805골·1931-1955년·오스트리아), 호마리우(772골·1985-2007년), 펠레(767골·1957-1977년·이상 브라질), 페렌츠 푸스카스(746골·1943-1966년·헝가리), 게르트 뮐러(735골·1962-1981년·독일), 크리스티아누 호날두(728골·2002-현재

포르투갈)가 개인 통산 700골을 달성한 바 있다.

꾸준함이 신화 작성의 원동력이 됐다. 메시는 말 그대로 '밥 먹듯이' 골을 넣는 '득점 기계'의 모습을 지난 10여년간 유지해왔다.

바르셀로나에서의 득점만 놓고 봐도 2009-2010 시즌부터 지난 시즌까지 한 시즌도 빠짐없이 40골 이상을 기록했다. 이 중 50골 이상을 기록한 게 6시즌이나 되며, 2011-2012시즌에는 무려 73골을 기록하기도 했다.

득점 기록만 놓고 보면, 현대 '최고'의 자리를 두고 10년 넘게 다투는 호날두보다 메시가 우세하다.

메시는 호날두보다 시간상으로는 늦게 700호골 고지에 올랐으나, 데뷔 시절 등을 고려하면 그보다 일찍 대기록을 작성했다.

호날두는 8개월여 전인 지난해 10월 15일 우크라이나의 유로 2020 예선에서 개인 통산 700호골을

터뜨렸다.

하지만 호날두는 2002년, 메시는 2005년에 성인 무대에 데뷔했다. 호날두가 19년 차에 기록한 700호골을 메시는 16년 차에 달성한 셈이다.

700골을 넣는 데 소요된 경기 수도 메시가 호날두보다 111경기나 적었다.

우크라이나와의 유로 2020 예선은 호날두의 973번째 경기였고, 이날 AT마드리드전은 메시의 862번째 경기였다.

700호골을 넣은 경기까지 경기당 골 수로 비교하면, 호날두가 0.72골을, 메시는 0.81골을 기록했다.

다만, 700호골을 넣고 웃지 못했다는 점은 두 선수가 같다.

포르투갈은 우크라이나와의 유로 2020 예선에서 1-2로 졌다.

바르셀로나는 이날 AT마드리드와 2-2로 비겨 레알 마드리드와의 치열한 선두 다툼에서 열세에 놓였다. /연합뉴스